

지광 스님 지음 | 위로출판 | 280쪽 | 값 15,000원
구입문의 02-577-5800(교300)



현실은 영원이 다

"우리는 모두 죽으면 그만일까?
이번 한 생으로 정녕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삶의 영원성을 강렬하게 체득케하는 죽음의 반격!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닥쳐올 때까지 삶에 취해 죽음을 잊고 삽니다. 죽음에 대한 아무런 대비없이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길을 떠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생각지 않은 채 살아 갑니다. 육신의 감옥에서 매일 매일 죽음을 잊은 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원력을 지닌 자들은 현실 가운데 영원을 생각합니다. 허공 가운데, 축복 아닌 것은 없습니다. 고통조차, 죽음조차 축복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숙케 하려는 허공의 지극하신 배려요, 우리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만들려는 영원의 선물입니다.

코로나로 떠나가신 많은 영혼들의 명복을 빕니다!

現 능인선원장, 서울대학원 철학박사, 한국일보 해직기자
하버드, 프린스턴, 소르본느대 등의 강연. 「법고대통」, 「정진」 등 다수 출간

저자 지광스님



지광스님의 위로TV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30분 절찬방송

유튜브에서

지광스님의 위로



를 검색하세요

